

SOC, 5조원 투자로 10만명 일자리 만들어진다

-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외환위기를 벗어났지만 최근 일자리가 줄어들어 외환위기 때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
 - 2003년의 경제성장률은 3%대에 못 미쳤고 2004년의 경제성장률은 5%대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 - 2003년에는 실업률이 3.4%였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이 8.4%였고,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2004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- 정부는 조세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, 지자체는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「공공근로사업」을 추진중임
 -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 및 노동구조 등의 변화로 기존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져서 새로운 전략의 마련이 필요함
-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도시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SOC 투자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함
 - 우선 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광역시의 경우 「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 SOC 정비 프로그램」을 추진하면 3만 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
 -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, 「기초 지자체 재난·재해예방 및 기반 SOC 시설 개량 프로그램」을 추진하면 6만 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

1. SOC 투자, 외환위기 이후 줄이는 분위기

-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SOC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지만 SOC(토목용)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
 - 1999년 SOC 투자는 약 40조원(1995년 불변가격기준)이었으나 200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약 5조원이 감소한 약 35조원 수준임
 - 그 결과 SOC와 관련된 고용도 감소하여 1997년 건설부문에서 총 200만명이 고용되었으나 2003년에는 170만명 수준의 고용에 그치고 있음

부문별 건설투자추이

(단위 : 10억원)

구분	총 건설투자	주거용	비주거용	SOC(토목용)
1995	82,198	28,027	23,263	30,908
(증감율)	8.0%	8.3%	11.8%	5.0%
1996	87,247	28,449	22,441	36,357
(증감율)	6.1%	1.5%	-3.5%	17.6%
1997	89,285	26,668	22,544	40,073
(증감율)	2.3%	-6.3%	0.5%	10.2%
1998	80,295	24,548	17,794	37,953
(증감율)	-10.1%	-7.9%	-21.1%	-5.3%
1999	72,059	20,506	11,125	40,428
(증감율)	-10.3%	-16.5%	-37.5%	6.5%
2000	69,140	18,454	13,117	37,569
(증감율)	-4.1%	-10.0%	17.9%	-7.1%
2001	72,788	20,574	14,017	38,196
(증감율)	5.3%	11.5%	6.9%	1.7%
2002	75,213	23,555	16,030	35,628
(증감율)	3.3%	14.5%	14.4%	-6.7%
2003	79,786	24,973	19,326	35,486
(증감율)	6.1%	6.0%	20.6%	-0.4%
2004	81,464	25,602	20,059	35,803
(증감율)	2.1%	2.5%	3.8%	0.9%

자료: 한국은행

주: 2004년은 국토연구원의 전망치

- SOC 투자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SOC 투자가 과다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재정 여건의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를 줄였기 때문임
- ※ 2004년의 경우 SOC 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은 전년대비 약 3% 수준 삭감되었음
 -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SOC 투자 감소는 건설산업 부문에서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임

2. SOC 투자, 다른 부문보다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

- SOC 투자는 생산유발효과와 고용효과는 높아서 전자는 1.97이고 후자는 10억원당 약 20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
 - SOC 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7% 이상 경제성장을 하였던 1995년에 약 0.8%p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투자 감소로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
- 2000년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전 산업에서 정보통신산업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8.5%에서 2000년에 12.3%로 3.8%p 증가하였음
 - 동 기간 중 정부통신부문에 대한 민간소비지출 2.6배, 정보화기기에 대한 투자 2.5배가 각각 증가하는 등 IT산업의 비중이 커졌음
 -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은 높아졌으나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수의 3.4%로 1995년의 3.2%에 비해 약 0.2%p 증가에 그쳤음
 - ※ 이에 비해 SOC관련 건설산업의 국민경제 비중은 2000년에 약 2.7%p 감소하였으나 취업자수의 비중은 약 0.5%p 감소에 그쳤음. 이는 SOC 투자의 고용효과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의미함
- SOC 투자는 산업활동이나 국민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로, 선진국의 경우 경기부양이나 경제성장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
 - OECD 상위그룹에 속하는 국가들 중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이미 넘어선 일본이나 독일도 GDP의 10% 이상을 SOC에 투자하고 있음
 - 그 이유는 SOC 투자의 고용효과가 높고, 주로 국내에 일자리가 창출되며, 효과도

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임

- 따라서,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
 - 우리나라도 고용효과가 크고 청년실업을 대거 흡수할 수 있으며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,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SOC 투자를 확충하여야 함

3. 일자리 창출형 SOC 투자 필요

- 외환위기 이후 SOC 투자는 대형국책사업의 마무리,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기보다는 진행중인 사업의 완공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
 - 그 배경에는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SOC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투자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차원의 인식과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을 가급적 억제하여 재정부담을 가급적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음
-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경제여건이 안정됨에 따라서 국민생활환경과 여건 개선, 재난·재해 방지 등과 관련된 SOC 수요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으며, 이에 대응하여 투자확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
 - 이러한 SOC투자 수요 변화를 감안하면, 일자리 창출형 SOC 투자는 국민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
- 즉,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집행하는 SOC 투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,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SOC 투자를 끌어올려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함. 그 방향은,
 -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도시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‘지역산업 및 생활기반 조성’을 위한 SOC 투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광역·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되어 추진하도록 하는 것임

□ 광역시,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 SOC 정비 프로그램 추진

- 전국평균 실업률 3.5% 수준보다 높은 광역시의 경우 노후 SOC 시설, 예컨대 상하수도, 도로시설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고급 건설기술자와 한계계층인 건설근로자 그리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음
 - 2004년에는 상반기에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노후 SOC 시설의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, 이를 토대로 「광역시 노후 SOC 시설 정비 3개년계획」을 수립하도록 하면,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
 - ※ 이와 관련하여 1개 광역시당 200억의 조사비가 투입되면 약 200명에서 300명의 인력이 고용될 수 있으며, 전체 광역시에서 약 1,000명~1,500명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음
 - 2004년 하반기부터 「광역시 노후 SOC 시설 정비 3개년계획」에 따라서 광역시에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면, 실질적으로 SOC 투자가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임
 - ※ 2004년 하반기에 1개 광역시당 3,000억원씩 투입하면 약 3만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

□ 기초지자체, 재난·재해예방 및 기반 SOC 시설 개량 프로그램 추진

-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반 SOC 시설이 낙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역시와는 달리 SOC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개량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 - 2004년 상반기에 낙후 SOC 시설과 재난·재해예방 시설 등의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, 이를 토대로 「기초지자체 낙후 SOC 시설 개량 및 재난·재해 방지계획」을 수립하도록 하면, 우선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
 - ※ 이와 관련하여 1개 기초지자체당 약 5억원의 조사비가 투입되면 약 5명 이상의 인력이 고용될 수 있으며, 전체 기초지자체에서 약 1,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

- 2004년 하반기부터 이 계획에 따라서 기초지자체별로 또는 기초지자체간에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면, 실질적으로 SOC 투자가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임

※ 2004년 하반기에 1개 기초지자체당 150억원씩 투입하면 전체 기초지자체에 약 3조원 이상이 투입되므로, 약 6만여명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

4. 부조리, 부실 없는 「클린」 사업으로 추진

- 짧은 시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SOC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부조리, 부실화 등이 우려됨
 - 특히 일자리 창출형 SOC 투자 사업의 경우, 일자리 제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투자성과는 챙기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
- 이를 불식하기 위하여, 창출된 일자리 배분과 수행을 투명하게 하고 사업이 종결된 이후에 반드시 사후평가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
 - 일자리 창출형 SOC 투자 프로그램 마련부터 집행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하도록 함
 -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적정화하고 참여자 선정과정도 공개적으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
 - 시민 감시체제를 가동하여 부조리나 부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추진하여야 함

국토연구원 김재영 SOC·건설경제연구실장 (jykim@krihs.re.kr, 031 - 380 - 0370)